

## “결국은 생산비가 수입 가름하는 척도”



김 경 남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장)

축산물 수입개방이 구체화되고 있는 이때 양돈협회에서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뜻있게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오늘 주제발표를 한 두분의 발표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UR협상은 완전 타결된 것이 아니라 GATT에서 이행계획서에 대한 최종 수정작업을 진행중인데, 돼지고기의 경우 쿼타제에 의해 내년부터 일정량을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GATT 협상에서 캐나다, 미국, 호주 등에서 쿼타량을 국영무역으로 하겠다는 우리측 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산출기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돼지고기 분야에서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으나 역시 국영무역 문

제가 걸려 있다.

최근 돼지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수급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돼지고기 수출도 작년에 비해 5% 줄어들고 있는 등 원활하지 못하다.

수입개방시대에 있어 생산비와 품질은 같은 수레바퀴로 볼 수 있으나, 축산물에 있어서 품질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한 결국은 생산비가 수입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돼지고기도 품질은 국내산과 외국산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결국은 생산비에 수입여부가 귀결된다 하겠다.

발표자께서 냉장육 수입이 어렵다고 발표했는데 우리에게 큰 다행이다.

정부에서는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비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양돈농가의 시설개선이 급선무라고 보고, 자동화의 전업농가의 규모확대를 위해 2억원 범위내에서 시설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양돈단지를 조성하는 농가에는 3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역시 인프라부분은 보조를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경쟁을 위해서는 양돈농가가 생산만 해서는 안되고, 생산과 유통을 연계해 나가야 한다. 즉 생산자들이 법단체를 형성하는 등 조직화해서 생산과 판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내 유수의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소비자에게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유통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계열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양돈의 경우 양계에 비해 계열화가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